

# 보따리 들고 튀르키예 국경으로...이란 하늘길 막혀 육로 대피

### 이스라엘 공습 격화에 테헤란 피란 행렬...도로 정체 튀르키예로 난민 유입 우려...“국경 혼란 없다” 부인

이스라엘의 거센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이란에서 포화를 피하기 위해 교외 지역이나 이웃 국가 튀르키예 등으로 피란을 떠나는 주민들이 늘고 있다고 AP, AFP 통신 등 외신이 16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이란과 500km가 넘는 국경을 접한 튀르키예에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을 피해 들어오는 입국자가 늘고 있다.

이날 이란 서북쪽 바자르칸 인근 귀블락 국경을 넘어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란 시민 시린 탈레비는 공습이 잦아들 때까지 당분간 튀르키예에 머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란 서부 우르미아에서 왔다는 그는 테헤란에서 자녀와 손주 등 나머지 가족들도 넘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나는 안전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개월 안에 모든 것이 끝나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이란 수도 테헤란 등을 노린 이스라엘의 공습 강도가 점점 거세지면서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이란을 빠져나가려는 피란민 수백명이 튀르키예 국경에 몰려들었다는 사진과 게시글 등이 올라오고 있다.

현재 튀르키예에는 이란 시민들에게 관광 등의

목적으로 90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차량이나 도보 등 육로로 국경 간 이동이 가능하다.

튀르키예와 이란 사이에 가장 분주한 국경 중 하나인 귀블락 국경에서 활동하는 한 버스 운전기사는 AP에 최근 이란에서 넘어오는 탑승객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그는 열흘 전만 해도 쇼핑이나 관광을 하러 온 이란인을 하루에 3-5명 정도 태웠지만, 이제는 “하루 최소 서른 명의 이란인들이 내 차를 탄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는 안전하지 않으며 여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한다”면서 “대부분은 튀르키예를 통해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다만 튀르키예 당국은 최근 이란에서 들어오고 있는 정확한 입국자 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튀르키예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특이한 움직임이나 혼란, 비정상적인 국경 이동은 없다”고 밝혔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자국에 이란 난민이 대거 유입되거나 안보가 위협받는 등 전쟁의 불똥이 튀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라고 AP는 전했다.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귀블락 국경에서 이란 시민들이 짐을 끌고 튀르키예에 도착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키안 이란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튀르키예가 이번 분쟁을 종식하고 중단된 미국과 이란 간의 핵협상을 재개하는 것에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영상 연설에서 이스라엘의 무력 행동을 규탄하면서 이란의 핵 문

제는 협상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세가 집중된 테헤란에는 더 많은 피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SNS 등에 올라온 이미지에 따르면 테헤란 도심에서 북부 가스피해 연안의 소도시 찰루스 등을 잇는 도로에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한 차량이 몰려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AFP는 전했다.

반대로 테헤란 시내로 들어오는 방향의 도로는 텅 빈 모습이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자 이란 당국은 테헤란의 공항 등 영공을 사실상 폐쇄했다.

하늘길이 막히자 육로로 피란을 가기 위한 차량이 늘면서 도로와 주유소 등에는 혼란이 이어졌다. /연합뉴스

## 대만 검찰, 병역기피 혐의로 배우 왕다루 등 28명 기소

### 유명 셰프·사업가·의사 등 포함

대만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인기 배우 왕다루(王大陸·왕대륙·33) 등 28명을 기소했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7일 보도했다.

대만 신베이시 지방 검찰은 전날 허위 진단서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체포된 연예인과 브로커에 대한 사건 수사를 종결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왕다루 등 연예인 9명과 유명 셰프, 음악 프로듀서, 사업가, 의사 등 15명, 이들의 병역 기피를 도와준 브로커 4명 등 28명이 군법상 병역 방해 및 형법상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왕씨의 경우 장기 해외 촬영 등으로 인해 병역 기피를 위한 병원 검진이 불가능해지자 지난해 10월 브로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건강 보험증, 300만 대만달러(약 1억6천만원)를 전달

하고 대신 진료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기소된 병역 기피자 28명은 브로커가 알려준 방법을 통해 중증 고혈압 등 지병을 앓는 것처럼 의료기관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당국에 제출, 재신검을 통해 병역 면제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브로커는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 24명으로부터 각각 20만-50만 대만달러(약 920만-2천300만원)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왕다루는 지난 2월 병역 기피 혐의로 체포된 후 지난 3월 1년 기간의 대체복무역(대체역)을 위해 신병 훈련소인 중부 타이중 청궁링에서 훈련을 마치고 타이베이시 사회국 사회복지과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왕다루는 영화 ‘나의 소녀시대’(2015), ‘장난스러운 키스’ 등에서 주연으로 활약,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은 스타 배우다. /연합뉴스

## 태국서 코로나19 감염 급증세...지난주 40명 사망

태국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증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네이션에 따르면 태국 질병통제국(DDC)은 지난 8-14일 한 주 동안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전국에서 7만6천161명 보고됐으며, 40명이 사망했다고 전날 밝혔다.

신규 환자 중 7만2천166명은 입원했고, 3천995명은 외래 치료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이 기간 수도 방콕에서 1만7천945명이 감염돼 가장 많았다.

태국 코로나19 환자는 2주 연속 증가했으며, 최근 더 가파른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이달 초

까지 114명이었으나, 한 주 만에 154명으로 뛰었다. 올해 신규 확진자는 총 47만6천584명으로 늘었다.

보건 당국은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신 접종 등 예방 조치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타이 워라따나랏 쏘랄롱폰대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4주간 코로나19로 태국에서 116명이 숨졌다”며 “이는 계절성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2배 많은 수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美 LA서 백제 특별전...‘한국의 숨겨진 문화유산’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백제의 문화유산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전시가 한 달여간 열린다.

LA한국문화원은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과 함께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8월4일까지 LA 시내 문화원 전시장에서 ‘백제: 한국의 숨겨진 문화유산-백제에서 현대까지’(Baekje: The Hidden Cultural Heritage of Korea - From Baekje to the Present)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 전시는 백제 문화를 포함해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한국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미국 현지인들과 한인 동포들에게 소개하고자 기획됐다고 문화원 측은 설명했다.

문화원 1층 상설전시실과 2층 특별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우아하고 섬세한 백제의 예술세계가 담긴 유물을 비롯해 충남도의 사계

를 담은 미디어아트, 조각·전통직물 작품, 무형 문화유산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사전 프로그램으로 백제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전문적인 강연과 창작 국악팀 ‘비단’의 공연도 열린다.

이해문 LA문화원장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백제 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한국문화의 멋과 매력이 LA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 전역에 널리 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중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이번 특별전은 충남도의 역사·문화가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후끈한 열기! 시원한 샷~!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이 있을까요?

##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스포츠

**파크골프**

**무료 레슨**

오시는 길

무엇보다도

전문 강사

신세계 백화점

**전일파크골프**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자로 26(전일상사 2층)    문의 062)368-5779 / 010-4645-5778